

萬 事 大 平

만사대평

2018년
7월 특별호



반갑습니다. 만사대평 편집팀입니다.

만사대평은 지난 3월호를 발간한 후 잠시 휴식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모습의 '만사대평'으로 독자 분들 앞에 다시 섰습니다.

만사대평 편집팀은 몇 개월의 고민 끝에 '신문'이 아닌 '잡지'의 형태로 바꾸어보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마을의 이야기를 담는 가장 좋은 그릇을 찾기 위한 여정의 하나입니다. 좀 더 여유로워진 지면에 더욱 알찬 내용과 다채로운 볼거리를 채워 넣을 것입니다.
(마을 어르신들을 배려해 글자 크기는 그대로 하였습니다)

기존 만사대평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온 대평동 용어사전을 비롯해 마을소식, 건강상식 코너와 함께 '기획특집', '자세히 보아야 보인다', '마음이 가는 대로' 등 새로운 코너도 준비했습니다.

주민 분들에게는 소식지로 방문객 분들에게는 마을을 더 생생하게 만나볼수있는잡지로제역할을다할수있도록더욱노력하겠습니다.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다고 말씀해주며 더욱 만사대평을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대평 편집팀 올림

목 2 다시 시작하며

차 3 자세히 보아야 보인다 "마을다방 편"

6 기획특집코너
막내기자가 들려드리는 "알쓸잡이"

8 대평동 용어사전

9 마음가는대로 / 이달의 건강상식

10 시가있는 강강이마을

11 강강이에술마을 마을동아리
회원 모집

14 아티스트 토크, 예술가의 밥상

15 칭찬합니다 / 퀴즈대평



“마을다방편”

글. 하은지



위치 부산시 영도구 대평로27번길 6
강강이생활문화센터 1층

이용시간 월~일, 오전 10시~오후 6시

이미 다녀가신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도 많은 대평마을다방.

대평마을다방은 카페 운영을 위해 바리스타 공부도 하고 자격증까지 따신 대평동 주민 분께서 직접 커피도 내려 주시고 바쁘지 않을 때는 서빙도 해 주시는 동네 다방인데요. 따뜻하게 반겨 주시는 주민 분들과 쾌적한 실내 분위기 덕분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언뜻 보면 여느 다방과 다름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보이는 대평마을 다방의 매력을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엄마의 팔빙수

최근 대평마을다방에서 여름 한정 메뉴로 팔빙수를 내놓았습니다. 전동제빙기로 성글게 얼음을 갈아 넣고 팔과 연유로 맛을 낸 옛날 방식의 팔빙수입니다. 그런데 얼음 위에 올려진 팔의 양이 조금 적다 생각하며 먹다 보니, 중간에 팔이 더 깔려 있네요. 얼음 위에 팔, 그리고 얼음, 또 위에 팔. 이렇게 팔과 얼음이 4층탑을 이루는 것이 대평마을다방 팔빙수의 핵심입니다.



COFFEE			TEA			BEVERAGE			ICE CREAM		
아메리카노	HOT / 2,5	ICED / 3,0	허브티	HOT / 3,5	ICED / 4,0	녹차라떼	HOT / 3,5	ICED / 4,0	콘파나	HOT / 3,5	
카페라떼	HOT / 3,0	ICED / 3,5	(케모와일, 자스민, 루이보스, 피치민트)			초코라떼	HOT / 3,5	ICED / 4,0	아프카토		4,0
카푸치노	HOT / 3,0		레몬티	HOT / 3,5	ICED / 4,0	고구마라떼	HOT / 3,5	ICED / 4,0	아인슈페너	HOT / 4,0	ICED / 4,5
바닐라라떼	HOT / 3,5	ICED / 4,0	자몽티	HOT / 3,5	ICED / 4,0	레몬에이드		ICED / 4,0	에스프레소	HOT / 3,0	
카라멜마끼아또	HOT / 3,5	ICED / 4,0	유자차	HOT / 3,5	ICED / 4,0	자몽에이드		ICED / 4,0	BERE		
카페모카	HOT / 3,5	ICED / 4,0	생과일쥬스		ICED / 5,0	딸기스무디		ICED / 5,0	카스/화이트/카페리		4,0
연유라떼	HOT / 3,5	ICED / 4,0	팔빙수		3,0	블루베리스무디		ICED / 5,0			

이런 방식은 박기영 점장님의 아이디어인데요. 어릴 적 팔빙수 장사를 하셨던 어머니의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 팔이 부족하지 않도록 얼음 사이사이에 팔을 넣어주셨던 것이죠.



예순이 넘어 바리스타가 된 아들은 손수 팔빙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가 손수 해주시던 팔빙수의 맛을 느낄 수 없지만 팔빙수를 맛있게 먹어주는 손님들을 보며 어머니의 마음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원①19, 오③15, 원②35, 오①17」의 의미



한창 마을박물관 기증품 수집이 한창이던 지난 3월, 사업단 사무실로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평동에 있는 여덟 곳의 수리조선소 중 하나인 삼화조선소에서 온 전화였는데요. 마을박물관에 기증할 물건이 있는데 한번 와보겠냐는 것입니다.

‘금고’라는 말만 듣고 조선소로 걸어갈 때까지는 작은 서랍 크기만 하리라 예상했는데 실제로보니 작은 냉장고 사이즈 정도였습니다. 삼화조선소 구민석 사장님이 직접 기증한 이 금고는 할아버지 때부터 사용하던 것인데, 이 금고는 할아버지가 처음 삼화조선소를 불하받기 전부터 있었으며 일본인들이 사용했을 거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금고와 함께 흰 종이와 손바닥만한 커다란 열쇠가 딸려왔는데요. 거기에 원①19, 오③15, 원②35, 오①17라는 방향과 숫자가 적혀 있었죠. 많은 분들이 짐작하신대로 그건 금고를 여는 방법이었는데요. 도무지 열 수가 없어 결국 다시 사장님이 오셔서 금고를 열어 주셔야 했죠.

오사카에서 만들어진 일본의 금고. 성인 남성 네 명이 붙어도 꿈쩍도 하지 않던 그 묵직한 금고는 지게차에 매달려 생활문화센터 앞까지 도착했지만, 결국 2층 마을 박물관 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마을다방 한 편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은행나무와 신명덕 장인의 나무벤치

대평마을다방은 본래 대평유치원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대평유치원 앞에는 커다란 은행나무 두 그루가 있었습니다. 사업단의 임시 사무실로 사용했던 (임시라고 하기에는 1년 가까이 머물렀던) 2층 대평마을회관. 의자에 앉아있으면 은행나무의 싱그러운 잎사귀들을 직접 눈앞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계절의 감각도, 바람의 세기도 느끼게 해준 고마운 나무였습니다.

깡깡이 생활문화센터 공사를 앞두고, 대평유치원 앞에서 고사가 열렸습니다. 공사가 무탈하게 잘 진행되길 기원함과 동시에 은행나무의 영혼을 달래주는 의식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너무 낡아버린 건물은 대대적인 보강이 필요했고 커져버린 공사를 위해 안타깝지만 은행나무 두 그루 중 한 그루를 자르게 된 것입니다. 대신 다른 방법으로 이 은행나무를 기억하고 남기기로 했는데요. 나무장인 신명덕 선생님의 손길을 거쳐 벤치와 의자가 되어 예전 그 모습처럼 마을 공간 한편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가끔 다방에 앉아 나무를 지그시 바라보거나 또 만져 보기도 합니다. 손끝으로 나무의 결과 따뜻한 온도를 전해주는 걸 보니 여전히 살아있는 것만 같습니다.





막내기자가 들려드리는 **알쓸잡이** 알아두면 쓸데없는 잡다한 이야기

글. 김슬기

소확행



(출처: MBC 무한도전 캡처화면)

‘YOLO(올로)’ 라는 말을 아시나요? ‘YOLO(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 이라는 뜻으로 먼 미래보다는 나 자신의 현재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문화가 말 그대로 2017년의 대세였습니다. 하지만 한 번 사는 인생 땀주먹으로 덤비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었죠. 대중성을 점차 잃어가고 있을 때 쯤 ‘소확행(小確幸)’이라는 문화가 등장하게 됩니다. 올로에 비하면 소확행은 미래의 성공과 목표를 위해 달려가면서도 적은 비용으로 얼마든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현실적이고 더욱 더 와 닿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삶의 방식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 소확행(小確幸)은 1986년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에서 이미 묘사를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다시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업에 크게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여유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기성세대들과 열심히 노력해도 미래가 불확실한 사회에서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등을 포기하며 치열하게 살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이러한 팍팍한 현실에서 찾을 수 있는 탈출구가 아니었을까요?





소확행은 영화, TV, 라디오, 신문 등 다양한 매체에서 심심찮게 노출이 되어 기성세대들에게도 점차 전파되고 있는 문화입니다. 근대 수리조선 산업 1번지였던 이 곳, 대평동에서 조선 관련업으로 가족들을 위해 수 십 년의 세월을 지나오셨던 우리 마을분들도 같이 알고 실천해보자 하는 마음에 긴 글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적으면서 주위를 둘러보니 마을 곳곳에 있는 예술작품, 바로 앞에 바다를 볼 수 있는 풍경, 약속을 하지 않아도 이웃들끼리 만날 수 있는 마을다방, 이웃들과 함께 관심이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배우는 기쁨 등 우리 마을에만 존재하는 소확행들이 우리 도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당신의 소확행은 무엇입니까? 무더운 날 시원한 카페에 들러 마시는 아이스커피 한 잔, 주말에 등산가기, 좋아하는 동호회에 참석하기, 고단한 일을 끝내고 마시는 막걸리 한 잔의 행복감과 같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변에서 찾으며 우리의 삶의 가치를 증폭시키면 좋지 않을까요.

네잎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이죠. 네잎클로버를 찾기 위해 수없이 버리고 밟았던 세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라고 합니다. 행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위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소소한 행복들을 버리고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확행을 찾는 것이 더 큰 행복을 위한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대평동 곳곳의 소확행들을 찾아 더욱 행복한 우리 마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이로 (GYRO)

‘선박은 넓은 바다에서 어떻게 방향을 알고 항해를 하는 것인가? (나침반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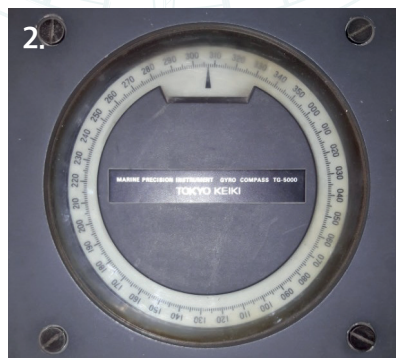
‘조타실의 조타기로 외부에 연결된 키(라더, rudder; 방향타)를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항해한다는데 그러면 조타기의 방향설정은 어떻게 정하는가?’ 하는 질문에 "자이로 (GYRO; 방향 측정기기)라는 기기가 있다고 하여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대평동에서 30년 경력의 강수한(유한 자이로 대표)님을 찾아뵈었더니 자이로 기능에 대하여 친절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이로(GYRO)란 3개의 축이 있는 물체를 고속으로 회전을 시키면 어떤 방향에서 정지를 하게 되는데 이 물체가 정지한 상태가 북(N)을 가리키면 이 지점을 신호로 뽑아서 동, 서, 남을 확인해서 원하는 방향을 결정짓도록 하는 기기입니다. 자이로에서 신호를 보내면 조타기가 방향을 읽어 표시된 방향으로 키를 움직이므로 원하는 방향으로 항해를 하게 됩니다.

자이로에서 신호를 보내주어야 레이더 기기도 작동할 수 있고, 통신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처음 설정한 회전축의 방향을 일정하게 유지 시키는 기능으로 선박, 항공기 등에 방향과 평행성(기울기)을 측정 하는데도 사용됩니다.

도움을 주신 강수한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글. 이춘옥 주민기자

1. 자이로(GYRO)기기
2. 자이로 기능을 응용한 자이로 콤파스

그리움

- 이은미

보고 싶은 얼굴

누구나 하나, 둘 언제나 그리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지나가던 길에 매일 들리던 짹짹 소리가 점점 희미하게 사라져 가는듯한
그 소리가 그리워집니다.

예전의 모습들이

하루하루가 바빠던 마을이

주말은 조용한 파도 소리만 들리고

갈매기만 날아왔다가는 모습에 손님을 맞이할 어머니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한적한 마을의 모습을 보고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희미해져가는 참 아쉬운 마음이 드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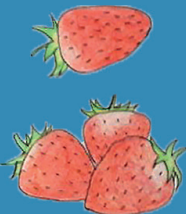
이달의 건강 상식

비염을 예방하는 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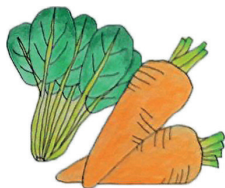
대추(차)

알레르기 비염에 좋은 대추는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몸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대추차를 마시면 비염과 감기에 좋아요. 비타민과 철분이 풍부해 호흡기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딸기

알레르기 비염에 딸기가 좋다? 딸기 속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있는데 이것은 호흡기 손상을 막는 역할을 해서 알레르기 비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녹황색 채소

알레르기 비염에 녹황색 채소들도 효과적입니다. 평소, 비타민 B나 C가 풍부한 제철과일, 녹황색 채소를 섭취해 호흡기 기관의 면역력을 높여줘 알레르기 비염 예방에 좋아요.



모든 사건
서만선

등생하고 들고 나오다 부디쳐

밥상 그릇을 다 깨어 버렸다

엄마는 쳐다 보고 말이 없다

씨 어머니님 귀가 어두워 생활에

비우 마추기가 힘들었다

부식 가게 물근사 도선타고 가에

잘못근너 바다물에 빠져 아저씨가

손 잡아 올라와서 살았다

우리 주인 양반 조그만 한

통선 배를 하는데 이틀동안

배도 사랑도 안보일 때

보고픈 주인 양반 날두고

먼 산을 뜨날 때

나 먼저가서 좋은집 사놓을게

다음에 와라



* 이 시화는 갯강이 예술마을 시화동아리 회원이신 서만선 어머니의 작품입니다.

강강이에술마을 마을동아리 회원 모집



활동기간 2018년 8월 - 11월까지

장 소 강강이 생활문화센터(구 대평동사 2층)
동아리실, 마을공작소 등

대 상 대평동(남향동) 주민 누구나 가능

수 강 료 무료

신청및문의 강강이에술마을 사업단 ☎051-418-1863

1. 마을목수 동아리

마을에 필요한 것들을 제작하고,
마을의 화단, 작품 등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 마을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간다.

- 일정 : 8월 10일(금)부터
오후 2시-4시 (8회)
- 강사 : 정시원 작가
- 인원 : 10명 이내
- 장소 : 강강이 마을공작소

회차	주제	비고
1	마을목수 동아리 첫모임	공작소 사용법(안전교육)과 강강이에술마을 함께 둘러보기
2	공방작업-1	공구사용법 익히기 1
3	공방작업-2	공구사용법 익히기 2
4	현장작업-1	마을가꾸기 실전 1
5	현장작업-2	마을가꾸기 실전 2
6	소품 제작-1	나만의 생활소품 만들기
7	소품 제작-2	나만의 생활소품 만들기
8	마을가꾸기 논의	공간운영과 마을목수 정기모임논의

2. 나만의 자서전 쓰기 동아리

자기표현에 서툰 분들을 위한 글쓰기연습.

자신의 인생 혹은 누군가에게 남기고 싶은 나만의 자서전을 한권 만들어 본다.

□ 일정 : 8월 9일(목) 오후 2시~4시 (8회)

□ 강사 : 소설가 정우련

□ 인원 : 10명 이내

□ 장소 : 갯강이 생활문화센터(구 대평동사 2층) 동아리실

회차	주제	비고
1	오리엔테이션	어떻게 쓸 것인가
2	나의 유년과 청춘기	청소년기
3		20대와 30대, 어른이 되어
4	성인이 되어	결혼생활
5		부모가 되어
6	황혼의 문턱에서	중년으로 접어들어
7		노년을 보내며
8	회상	삶을 기록하고 공유한다는 것

3. 민요부르기 동아리

여러 지역의 전통민요를 장단에 맞춰 함께 부르고, 구성진 가락에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담아본다.

□ 일정 : 8월 1일(수) 오후 2시~4시 (11회)

□ 강사 : 소리꾼 서영화

□ 인원 : 20명 이내

□ 장소 : 갯강이 생활문화센터(구 대평동사 2층) 동아리실

회차	주제	비고
1	민요의 발성과 소리내기 연습	보리타작 노래 “웅헤야”
2		제주도 민요 “너영나영”
3		경기민요 “뱃노래” (굿거리 장단)
4		뱃노래 (자진모리 장단)
5	우리의 이야기	노랫말 바꾸어 불러보기
6-11		후렴구 만들기

4. 마을해설사 신규양성과정

*2017-18년 갯강이 수리조선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 일환

대평동의 역사를 함께 공부하고, 방문객에게 마을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을 배우는 마을해설사 양성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관심 있는 분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일정 : 8월 10(금) 오후 2시-4시 (8회)
- 진행 : 강미라 팀장(핑크로더) □ 인원 : 15명 이내
- 장소 : 갯강이 생활문화센터(구 대평동사 2층) 동아리실

회차	교육주제	교육 강사명
1	• 오리엔테이션 - 마을해설사의 필요성과 역할	양화니
2	갯강이마을의 역사와 문화 바라보기	기존 해설사 3명, 강미라
3	• 마을해설사 실무 교육 - 고객서비스교육 - 여행접수에서 마무리까지 시뮬레이션	강미라
4	• 마을해설사 자세 및 화법 - 스피치 교육을 통한 화술	노주원
5	• NEW 마을컨텐츠 발굴 - 해상투어를 통한 스토리텔링	허지영
6	• NEW 공간 알기 - 갯강이 마을 거점 공간 및 공공예술 작품탐구	강미라, 사업단
7	• 해설발표 리허설 및 평가회	강미라, 기존해설사 3명, 사업단
8	• 최종발표 기본 교육 수료	강미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영도구

영도문화원

이 프로그램은 2018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기사, 기사를 모집합니다

- 만사대평의 주민 기자가 되고 싶은 분
- 평소 글쓰기, 그림 그리기, 사진 찍기 등에 관심이 있으셨던 대평동 주민분
- 대평동을 다녀가신 분의 방문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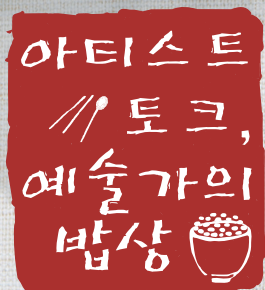
생활지면 광고를 게재해 드립니다

결혼 축하, 돌 기념, 고희 기념, 업체 광고 등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되는 소식들을 마을 신문을 통해 전해 보세요.

- 광고 게재료는 1만 원입니다.
- 만사대평은 부산시내 주요 관공서, 영도구 주요 기관 등에 배포됩니다.

갯강이에술마을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051-418-1863 | ydart2016@hanmail.net



예부터 밥상은 소통과 대화의 자리였습니다.

가족이나 동료 간에 함께 모여 하루 일상을 공유하며

우애를 다지는 중요한 시간이었죠.

강강이예술마을 사업단에서는 예술가의 밥상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가, 마을 주민, 기술자,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밥상 앞에 둘러 앉아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함께 소통하고자 합니다.

참여 예술가
소설가 정우련

게스트
나만의 자서전 쓰기
동아리 회원

주제
삶으로 글쓰기

일시 | 2018. 08. 11.
(토) 12:00 - 14:00

장소 | 강강이 생활문화센터
1층 대평마을다방
(부산시 영도구 대평로
27번길 6, 구. 대평유치원)

문의 | 051. 418. 1863
강강이예술마을 사업단

예술가와 마을 주민, 방문객이 만나는

첫 번째 토크 시간 : 안녕! 예술가

예술가의 추억 속 음식을 주민 셰프가 직접 만들고 함께 먹으며
예술가는 추억을 떠올리고 주민들은 새로운 경험을 선물받는

식사 시간 : 예술가의 밥상

나만의 자서전 쓰기 동아리 회원들의 시낭송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두 번째 토크 시간 : 시로 쓴 삶

각자 주제에 맞추어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고
짧은 자서전을 써 보는

참여 시간 : 답아 쓰는 이야기

완성된 짧은 자서전을 함께 읽어보는

세 번째 토크 시간 : 함께 읽는 자서전

오시는 길

지하철 | 남포역 6번 출구,
영도대교 건너 도보로 15분

버 스 | 영도대교 정류장 탑승 /
6번 (영도전화국 하차, 도보 7분)
7, 9, 71, 508번 (남향동 정류장 하차 후 도보 9분)



칭찬합니다

이득생님



김상점님께서 이득생님을 칭찬해달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주)덕성해양개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득생님은 **따뜻한 마음과 훌륭한 인품**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이웃사랑 나눔회, 무지개봉사단, BBS회 모임 등 **다양한 봉사활동**도 하고 계시며 **불빛이 어두운 우리 마을에 LED전구교체, 건의해소** 등 밝은 빛을 밝혀 주는 안전한 마을을 위해 노력도 하신답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에 우리 마을은 훈훈한 것 같습니다. **노래실력 또한 뛰어나다**고 하시는데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마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이득생님을 칭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글.이종렬 주민기자

퀴즈대평 !



이것은 삼화조선소 구민석 사장님이 직접 기증한 것으로
원①19, 오③15, 원②35, 오①17라는 방향과 숫자가 적혀있습니다.
작은 냉장고 사이즈로 오사카에서 만들어진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 ()

퀴즈대평의 정답을 적어 맞추시는 선착순 3분을 뽑아 경품을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퀴즈의 정답을 작성하여 생활문화센터 2층으로 방문해주세요.)

강강이예술마을 사무국

051-418-1863

부산시 영도구 대평로27번길 8-8,
2층생활문화센터 ydart2016@hanmail.net

발행처: 영도문화원

편집인: 하은지, 김슬기

주민기자: 이춘옥, 이종렬, 이은미

디자인: **STORYMERGE** Design

발행일: 2018년 7월

*「만사대평」은 2018 산업관광 육성 사업 2차(강강이 수리조선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